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남 미 경(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사) · 이 경 님(동아대학교 교수)

가출 충동은 가출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가출 충동이 높을수록 실제 가출 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출행동이 이루어지기 전 선행되는 가출충동을 연구함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 환경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생태학적 체계 관점은 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유기체 변인과 각각의 체계 변인들이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 651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청소년의 가출충동 척도, 유기체변인(자아존중감, 충동통제, 학업성적, 가출경험유무), 미시체계변인(부모지지, 부부갈등, 부모감독, 교사지지, 학교생활 불만족,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 중간체계변인(가정-학교관계, 가정-또래관계), 외체계변인(지역사회환경)을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를 구하고 연구문제에 따라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가출충동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은 자아존중감, 충동통제 및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부모의 부부갈등, 학교생활불만족과 문제행동친구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지지, 어머니 지지, 부모감독 및 교사 지지가 낮을수록, 가정과 또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지역사회환경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높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가정과 학교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가출충동이 높다. 셋째,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남학생의 경우 문제행동친구 노출정도, 여학생 경우 자아존중감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남학생의 경우 학교생활불만족, 자아존중감, 지역사회환경, 어머니 지지 및 가출 경험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가출경험이 가출충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남학생의 경우 문제행동친구노출정도가, 여학생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이 가장 위험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출경험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출충동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위험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학생의 가출충동에 어머니 지지는 보호요인이며 학교생활불만족 및 유해한 지역사회 환경은 위험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예방하고 감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대처방안의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